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예체능계)

접수번호

--	--	--	--	--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논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선왕(先王)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했다.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천하를 다스리기 마치 손바닥 위의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사람들에게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이렇다.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바로 그런 마음은 어린 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며, 단지 측은한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仁)의 시작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시작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시작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知)의 시작이다. 사람이 이 사단(四端)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선한 본성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이 사단을 가지고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채운다면 사해(四海)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조차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나]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can be extended into what Robert L. Trivers (1971) has called *reciprocal altruism*. The paradigm offered by Trivers is good samaritan behavior in human beings. A man is drowning, let us say, and another man jumps in to save him, even though the two may not even have met previously. The reaction is typical of what human beings regard as "pure" altruism. However, upon reflection one can see that the good samaritan has much to gain by his act. Suppose that the drowning man has a one-half chance of drowning if he is not assisted, whereas the rescuer has a one-in-twenty chance of dying. Imagine further that when the rescuer drowns the victim also drowns, but when the rescuer lives the victim is always saved.

If such episodes are extremely rare, the Darwinist calculus would predict little or no gain to the fitness of the rescuer for his attempt. But if the drowning man reciprocates at a future time, and the risks of drowning stay the same, it will have benefited both individuals to have played the role of rescuer. Each man will have traded a one-half chance of dying for about a one-tenth chance. A population at large that enters into a series of such moral obligations, that is, reciprocally altruistic acts, will be a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generally increased genetic fitness. The trade-off actually enhances personal fitness and is less purely altruistic than acts evolving out of interdemic* and kin selection.

*interdemic=interpopulation

[다]

1990년대 초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짧은꼬리원숭이의 행동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s)는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행동을 스스로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개체가 그와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게 되는 특수한 뇌세포군을 말한다.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은 특히 우리의 사회적 자아 이해에 큰 도움을 주는 획기적 발견으로 간주된다.

거울신경세포의 발견 이전에 과학자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우리 뇌의 논리적 사유과정을 통해서라고 믿었다. 그러나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라고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거울신경세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 이전의 의도와 감정마저도 거울처럼 모방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미소짓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되면 미소를 관장하는 당신의 거울신경세포도 동시에 작동하여 당신의 마음 속에 미소와 연관된 느낌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소를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당신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울신경세포는 따라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작용의 신경학적 기초를 이해하게 해 준다. 이런 연구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왜 타자에 대한 공감(empathy)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자폐증처럼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뇌의 이상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줄 것이며, 언어 진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뇌졸중 환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치료법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짧은꼬리원숭이만이 아니라 인간도 거울신경세포체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물컵을 드는 것을 보면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히 작동하며, 다른 사람의 특정한 얼굴 표정을 볼 때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해독(인지, 해석)한다는 의미이며 상대방과 동일한 우리 뇌의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에 있어서 거울신경세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주고 받는 것은 대부분 얼굴 표정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라]

다윈은 사회적 동물들이 서로 여러 가지 사소한 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상대가 가려운 곳이 있으면 말은 입으로 가볍게 깨물어 주고 소는 핥아 준다. 원숭이들은 번갈아 가며 이나 서캐를 잡아 준다.” 다윈을 가리켜 자연은 잔인하고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라고 확신한 인물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위의 내용은 그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는 “고등동물에게도 대부분 우리와 공통되는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 있으며 동물도 사랑할 줄 알 뿐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고 썼다.

말년에 다윈은 <종의기원>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진화를 보았다. 그는 고등동물들 가운데 사회성이 있고 감정이 풍부하고 동료의 곤경을 걱정할 줄 아는 종이 많다고 보았다. 그중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다른 종에게 동정을 보내는 동물을 소개하는 다윈의 언급은 눈에 띈다. 그는 자신이 기르던 개의 경우를 소개하였다. “고양이가 아파서 바구니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을 때였다. 그 개는 바구니 옆을 지나칠 때면 꼭 친구 고양이를 몇 번 핥아 주었다. 개에게는 친절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시였다.” 그는 “많은 동물들이 분명 상대방의 슬픔이나 위험에 동정을 드러낸다.”라고 썼다. 말년이 가까워지면서 다윈은 동물들의 사회적 본성, 심지어 정서적 유대를 설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정통 진화론자들에게는 아주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면이다. 다윈은 적자생존이 개인의 경쟁과 관련되는 것만큼이나 협동, 공생, 호혜성과도 관련 있으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는 동료들과 협력적 유대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높다고 믿게 되었다.

<종의 기원>에서 분명히 밝힌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이론이 당시의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윤리에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년의 저술에서 다윈은 존 스튜어트 밀을 위시한 당대 공리주의 사상가들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충동이 항상 예상된 쾌락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다윈은 모르는 사람을 구하려고 불속에 뛰어드는 행동을 예로 든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리적 보상에 관한 생각도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윈은 그런 행동은 쾌락을 위한 충동보다는 더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는 인간의 충동, 즉 사회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마]

소를 때리지 마라, 소가 가엾구나
아무리 네 소라고 때려서야 되겠느냐
소가 네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걸핏하면 소에게 화를 내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서 만 리 길을 다녀
네 어깨 피로를 대신했고
숨을 헐떡이며 넓은 밭을 갈아서
너의 배를 불러주었으니
이렇게 네게 해준 게 많거늘
너는 또 타고 다니며 회회낙낙하는구나
피리 불며 너 스스로는 즐겁지만
소는 지쳐서 걸음걸이도 처지는구나
너는 게다가 느리다고 화를 내어
회초리로 때린 것이 수도 없지
소를 때리지를 마라, 소가 가엾구나
하루아침에 소가 죽으면 너는 어찌하리
소 치는 아이야 너는 참 어리석구나
무쇠로 만든 소가 아닌데 어찌 더 견디어 내겠느냐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비교 논술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30점]

<문제 III>

제시문 [마]가 함축하는 의미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40점]

< 끝 >